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청년교구’ 탄생, ‘충현 젊은이와 함께’ 행사

5월 교회내 20-30대 모든 젊은이 회집하여
충현교회 21세기 향한 새 패턴의 자리매김
충동원 전도 및 체육대회, 세미나, 전시회 프로그램 진행

금년도에 신설된 청년교구에서는 5월 한달 동안 교회내 20, 30대 젊은이를 충동원하여 행사(‘충현 젊은이와 함께’)를 가지며 그동안의 청년교구의 활동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청년교구와 대학부, 청년 1·2부가 주축이 되어 실시하게 될 이번 행사는 교회 내의 모든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준비하고 행동함으로 ① 충현 젊은이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하며 ② 교회 내의 젊은이 전체의 힘을 모아 대학부, 청년부의 사역 가능성을 살펴 보고 ③ 대학부 및 청년부의 사역을 위한 장기계획의 계기로 삼으며 ④ 청년교구 내의 사람을 불러내어 교회 내에서 20대, 30대 청년의 교육의 장으로 대학부, 청년 1·2부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다.

원래 청년교구는 교회내의 10, 20, 30대 젊은이 단독세대로 이루어진 교구로 이들을 잘 관리하여 그들이 있어야 될 곳에서 교육받고 봉사하는 일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탄생된 교구이다. 따라서 대학부, 청년 1·2부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바르게 하고 피차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됨으로 청년교구는 물론이거니와 대학, 청년 1·2부도 새로운 부흥의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학부와 청년 1·2부도 전 회원이 한 마음이 되어 이 행사에 동참하며 그동안 청년교구에서 접촉했던 사람을 초청하여 대학부, 청년 1·2부와 함께 하도록 하고 ‘충현 젊은이와 함께’—여

름 수련회—단기선교사역, 국내 전도사역의 연결고리를 형성한다면 여름 행사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내 20대, 30대 젊은이의 전원 참석과 대학부, 청년부 소속 회원 중 장기결석자들의 전원 참석 및 청년교구에 소속된 자로 아직 교육부서나 봉사부서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참석시킬 계획이다. ‘충현 젊은이와 함께’의 행사 개요 및 행사 계획은 아래와 같다.

I. 행사 개요

1. 명칭: ‘충현 젊은이와 함께’
2. 주제 및 표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3. 주제 성구 및 찬송: 빌 1:27, 찬송가 350장
4. 행사 기간: 1997. 5. 1-6. 1
5. 참여 대상 및 예상인원: 청년교구, 대학부, 청년 1·2부 / 약 2,000명
6. 주요 행사: 체육대회, 세미나, 충현 젊은이 알뜰시장, 전시회, 충동원 전도 등
7. 행사 주최: 청년교구, 대학부, 청년 1·2부

II. 기본 행사 일정

- (1) 5/11 충현 젊은이의 밤
주일 저녁 찬양예배
(충현 젊은이 헌신예배)
- (2) 5/12-13 충현 젊은이 세미나

- (주제/통일과 선교, 직업과 소명)(월, 화 저녁)
- 1) 첫째날 / 통일과 선교
- 2) 둘째날 / 직업과 소명
- (3) 5/14 충현 젊은이 체육대회
장소: 광문고등학교 교정
- (4) 5/20 충동원 전도
(명동, 서울역 또는 교회 주변)
- (5) 5/24 충현 젊은이 알뜰시장, 일일차집 및 전시회
1) 알뜰시장 / 교회 뜰을 이용
2) 전시회 /
내용: 교회 역사물 전시(사진 및 옛 시대에 사용하던 물품 등), 학생들의 작품 전시
장소: 선교관 로비 및 지하 식당
- (6) 5/31 문화 행사
1) 문화 행사 / 영화, 멀티 미디어, 독서 토론, 도서전 등
2) 충현 젊은이 콘서트
- (7) 6/1 충동원 주일
(대학부, 청년 1·2부 집회시간에)
- (8) 6/7 마무리, 평가 및 후속 조치

III. 조직

공동대회장: 청년교구장, 대학부장, 청년1부장, 청년2부장
지도: 대학부, 청년 1·2부 지도 목사 및 청년교구 전도사
준비위원장(교사): 대학부, 청년 1·2부 남자 부장
준비위원장(학생): 대학부, 청년 1·2

부 면려회 회장

지도위원: 대학부, 청년 1·2부 교사
전원
협력위원: 대학부, 청년부 선배 중
약간명(면려회 회장, 부회장 출신)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97년도 제2차 학습 및 세례식이 오는 5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에 거행된다. 이번에 학습 및 세례, 개종, 입교,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는 성도는 4월 27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고 5월 4일, 11일에 실시되는 교육과 11일의 문답에 참석해야 한다.

실업인전도회

4월 22일 대사회원 초청집회 실시

실업인전도회는 금년 들어 교회내 불우한 가정의 자녀와 미자립 교회 교역자 자녀를 선정하여 장학금을 전달하여 천국일꾼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회원간에 유익한 기업 경영 정보를 교환하며 함께 위하여 기도하면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헌신할 실업인들을 전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대사회원 초청집회를 오는 4월 22일(화) 오후 6시 갈릴리홀에서 실시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헌혈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5월 4일(주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3시 30분까지
- 본당 앞 광장에서

우리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헌혈을 실시하고 있다. 인공 장기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는 현대 과학 기술로도 혈액만큼은 못 만들어내고 있고, 혈액 보관 유효기간이 35일을 못 넘기기에 매일의 필요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헌혈

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기 기증, 안구 기증 등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헌혈은 모두가 가능하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하자.

97년도 충현 단기선교단 모집

1. 지원 자격
 - 본교회 세례교인
 - 건강한 성도
 - 8주 단기 교육과정 및 체력 단련에 참가한 성도
 - 선금 10만원을 지불한 성도
2. 등록 및 모집
 - 4월 30일까지(지원서는 선교위원 회실에서 배부)

3. 교육 실시

- 일시: 5월 10일 - 6월 28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30분
- 장소: 베다니홀
- 이 교육을 수료한 성도 중 선교위원회에서 선발하여 경비 일부를 교회에서 지원(홍콩 30만원, 기타 지역 50만원 예정)

4. 일정

지역	기간	경비	인원	비고
인도네시아	7. 21 - 28	200만원	7명	의사, 간호사
홍콩	7. 12 - 19	75만원	12명	
이스라엘	7. 14 - 26	155만원	16명	
터키	8. 15 - 23	155만원	16명	
이집트	12. 22 - 31	150만원	10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교위원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552-8200 교환 357).



중헌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여호와와 우주의 대왕이시다

(시편 47:1-9)

본 시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작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후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편성하여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도 다같이 금식기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때 선지자 야히시엘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온 백성들은 모두 땅 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튿날 아침에 온 백성들이 원수가 쳐들어 오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백성들 가운데 성가대원을 불러 가운을 입혀 앞세우고 군사와 백성들이 그 뒤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찬송을 부르며 나갑니다.

이른 아침 원수들이 깨어 보니 예루살렘의 성가대원들이 찬송을 부르며 그들에게 나옵니다. 이것을 보니 원수들의 마음에 그만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 것들이 아무것도 안가지고 오직 찬미만 부를 때에는 분명히 그 뒤에 무장된 군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저리도 담대하고 늠름하게 걸어오면서 찬미를 부를 수가 있나. 이제 몽땅 죽게 되었구나. 아무래도 죽을 바에는 우리를 충동질한 에돔부터 때려 부셔야겠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두 나라는 에돔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가대가 찬송만 부르면서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싸움 하는 것을 구경합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암몬과 모압은 에돔의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몽땅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어찌된 영문인지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움을 합니다. 마침내 모압과 암몬 두 나라 군대도 전부 시체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 예루살렘은 위기를 면하고 전쟁에는 승리를 하고 재산도 생겼으며 세계가 떠는 권위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돌아갑니다.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원수들이 먹으려고 싣고 온 양식과 의복과 무기를 사흘이나 길러 옮기고 나흘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백성은 지팡이에 걸쳐 모든 악기를 다 들고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지은 시가 시편 47편입니다.

1. 찬양의 내용(47:1-4)

(1)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바닥을 친다'는 말은 열심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한

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높이고 찬양하는 노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임금이십니다. 천하에 비교할 자가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임금이요, 높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2) 엄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실 뿐만 아니라 엄위하십니다. 살살이 살피시는 분입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팽창해도 하나님은 악한 자의 권세를 조사하실 필요도 없이 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마치 가시나무가 사과나무의 영양분을 몽땅 도적질해 먹고 우쭐거리며 농부가 보고는 가시나무를 도끼로 찍어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엄위하신 분입니다.

(3)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조수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임금이십니다. 지도의 색깔을 하나님이 변경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옛날 사람들도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땅 위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4) 특별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실수를 한 적도 있는 사람으로 인간적으로는 강한 왕이 못됩니다. 악한 것이 인생이고 죄악에 때문에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잘못된 때에는 연단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를 하시지만 반드시 보호하시며 갈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안기위 주시고 마침내는 승리의 편류관을 주십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의롭지 못해도 회개만 하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실력이 모자라도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특별 취급을 해 주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 나라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나라를 몽땅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도 살아 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상병 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의 조수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임금이십니다. 지도의 색깔을 하나님이 변경시키십니다.

땅 위의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도 안생기고 그들이 싣고 온 양식과 의복과 무기를 가져 오고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에게는 천국을 주실 뿐 아니라 땅 위에서도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됩니다.

2.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권능(47:5-9)

(1)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 가운데 최고로 높이는 표현입니다.

세 나라가 여호사밧 왕을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그까지가 다 뭐야" 업신 여기면서 교만하게 왔던 그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의 멸망을 당하니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세 나라 연합군보다도 더 강한 악마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셨으며 악마의 꾀를 부수고 우리에게 천국가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땅의 만백성에게 밝히듯이 했다가 깜짝 놀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이 존경을 받게 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다가 결국 영원히 저주를 당합니다.

(2)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지구덩어리에 있는 나라들을 처리하십니다.

(3)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신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면할 수 있는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자기의 택한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혼으로 찬양하며 생명 전부를 바쳐서 세상 끝날까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수가 쳐들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일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에 복종했던 성가대원들, 찬송하며 원수를 마중나갔던 그들의 늠름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기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실 때에 마중 나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부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 장애인주일을 맞으며 1

“하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고 덕 인

(청각장애인, 에바다부 청년반 총무)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선 저에게 주간충현의 한 부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간증하기가 쑥스럽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간증하게 되면 에바다부 여러 식구에게 미안하고, 믿음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간증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를 찾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작년의 얘기를 조금이나마 할까 합니다.

저는 95년 12월 중순에 1학년을 다니던 칼빈신학교에 휴학신청하고 일년간의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전공학과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능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외롭고 우울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필요없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님도 안계시고, 소리도 듣지 못하며, 그렇다고 든든한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많은 질문도 해보았습니다.

96년 여름기간에 학원에 다니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우스개 소리를 해도 저는 그냥 앉아 구경만 했고 누구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썰렁한 고시원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고, 우울함이 더했습니다. 머리에 되새기는 말이 이번 입시에 실패하면 다음은 포기해야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우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자신이 없었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잘 안되던 공부가 더 안되자 맑은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고 잊기 위해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면증이라 하더군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고 또 누군가에게 저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또 흔들리는 신앙을 위해 에바다부 신창현 선생님을 찾아 갔습니다. 신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하며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 앞에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저의 결에는 아직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의 모습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이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께 솔로몬 왕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저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할 뿐이었습니다. 97년 대입시험을 앞두고 저의 마음은 점점 초조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공부를 시험날에 저는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만약 입시에서 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합격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사렛대학교의 인간재활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면서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 발표날에 합격이 되고 보니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난날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씻은 듯이 잊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오늘 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여러모로 도와 주신 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탕자처럼 방황하는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 장애인주일을 맞으며 2

아, 하나님의 은혜로

박 부 미

(권사, 에바다부 성인반 교사)

에바다부에서 봉사한 지 6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다. 뒤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시간들은 흘러갔다. 서툰 수화로 대화하며 때로는 글로 써 가면서 가정과 병원, 직장을 심방하여 대화하며 농아인들의 아픔과 괴로움, 때로는 즐거움을 함께 했던 순간들이 생각난다. 또한 수화가 부족하여 저들에게 더 따뜻한 위로를 못해 주었던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안타까워하면서 “수화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을 저도 그들에게 베풀게 하소서.” 하며 애통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던 적도 있었다. 또 한 사람 빠지면 마음 조려 한 주간을 보냈던 일, 빈 자리가 너무 많아 빈 자리를 채워 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간구했던 시간들이 이제 와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 주신 것 같다.

처음 수화를 배울 때에 이 나이에 수화를 배워서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일년 배우면 나는 3년을 배우면 되겠지 하면서, 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면 60살까지 해도 7년은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웠다. 수화가 너무도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만 이준우 강도사님의 특강을 통해 농아인 선교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농아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으로 열심히 배웠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소경이 보며 앓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눅 7:22)”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한번도 찬양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도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에바다부에서 믿음 생활

하는 농아인들은 참으로 복이 많다. 비록 손짓 언어인 수화로 드리는 찬양이지만 그 영혼으로 부르는 찬양은 더욱 아름답고 귀하다. 수화 통역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되었지만 그 자리는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자리다. 한 단어라도, 한 말씀이라도 틀려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먼저 앞선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우리들이 농아인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굳게 닫혀 있는 대화의 문턱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수요일 수화 초급반을 맡고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배우러 오시니 너무 감사하다. 손짓으로 하는 대화는 정말로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에바다부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결혼, 직장, 그리고 가정, 자녀 문제 등 많은 일들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더 많은 통역자들이 나와서 농아인들과 터놓고 대화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충현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10여쌍이 가정을 이루었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지금까지 에바다부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로님, 두 분 부감님과 우리의 영적 양식을 수화로 열심히 먹이시는 이준우 강도사님과 박인기 전도사님,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너무나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다. 나는 앞으로 에바다부에 무궁한 발전과 부흥이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에바다부의 모든 가족과 농아인들,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십대 중반에서 이십대와 삼십대 초반에 걸쳐 단독세대로 우리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가 처음으로 청년교구를 신설하여 3개월이 지났다.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거나 직장 따라 왔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믿지 아니해 혼자 떨어져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꽤나 많다. 1월부터 3월까지 2,000여명이 파악되었고 그중 교적을 부여받은 세대가 1,201세대이며 1,354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이 사실상 청년교구가 없었을 때에는 온전한 성도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소외받은 성도들이었지만 이제는 일반교구와 똑같은 성도의 위상으로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청년교구는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중등3년부터,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에 해당하는 연령의 단독세대



충현 청년교구(19교구) 3개월을 지나며

서 동 석

(청년교구장, 대학부장)

로 구성하고 있으며 일꾼으로는 교구장 1명, 교역자 6명, 협력교구장 3명, 지역장 8명, 간사 3명, 구역장 35명, 총 56명이 일선에서 뛰고 있다.

기존 교구를 1개 지역 단위로 편성하였으며 구역을 대학, 청년으로 구분하여 세웠다. 기존 교구일꾼들은 매주일 모이지만 청년교구는 특성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8시 교육관 209호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어서 청년교구 회원 전체 집회가 봉사관 지하2층 마르다홀에서 계속된다. 청년교구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7시 이후를 꼭 기억하여 출석하고 청년교구의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

아울러 청년교구에 소속된 성도 전체모임을 97년 4월 26일(토) 오후 7시 갈릴리움에서 가진다. 이 모임을 저녁을 제공하며 청년교구 존재에 대한 설명과 일꾼들을 소개하며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모임이며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다지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우리 청년교구에 소속된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교회의 미래는 밝고 교회는 계속 부흥 성장할 것임을 믿는다.

토막소식

▶ 영아부에서는 오늘 선교관 103호에서 학부모 성경이야기대회를 실시한다. 또 27일을 총동원 주일로 지키며 새 친구 초청잔치를 가질 예정이다.

▶ 유아부에서는 4월 27일 새 친구 초청잔치를 실시한다.

▶ 소년부에서는 4월 27일(주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특별 초청하여 새 친구와 잃은 양 초청 대잔치를 벌인다. 이날 행사를 위해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과 재미있는 말씀, 그리고 판토마임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맛있는 잔치집 음식도 푸짐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교회에 흥미를 모르는 초등학교 5, 6학년의 자녀들이나 조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학생들을 보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예배 시간은 1부가 오전 8시 50분, 2부가 오전 10시 50분으로 두 번 드려지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참석하면 된다. 예배 장소는 교육관 407호이다.

▶ 선교위원회에서는 오늘(4월 20일) 저녁 찬양예배 후 이승림 목사를 강사로 '역사적 관점에서 본 지역교회의 참모습'에 대해 공부한다. 한편 선교연구원에서는 선교언어 강의를 개설키로 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베다니홀

금주의 교구 영성훈련

4월 24일(목) / 7교구
4월 25일(금) / 17교구

각부서 특강 안내

◆ 장년1부

· 일시: 4월 20일(주일) 12시 30분
· 장소: 교육관 407호
· 주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 강사: 이한수 목사
(충신 신학대학원)

◆ 장년2부

· 일시: 4월 20일(주일) 12시 30분
· 장소: 교육관 314호
· 주제: 북한 교회의 현황과 전망
· 강사: 김성태 교수
(충신 신학대학원)

에서 강의를 한다.

충현복지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본선 진출

5월 20일(화)부터 22일(목)까지 상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위한 서울시 예선전이 4월 10일(목)과 11일(금) 이틀 동안 이루어졌다.

복지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탁구 3명, 육상 3명의 선수를 출전시켰다. 처음 출전하는 대회인만큼 참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는데 탁구에서 최태영(34세)씨, 육상 400M에서 원남수(23세)씨가 서울시 예선전에서 1등을 함으로써 전국 대회 본선에 출전하는 성과를 얻었다.

서울시 예선전을 앞두고 훈련생들과 담당 교사, 체육 지도 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 호흡을 맞추며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탁구의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틈틈이 연습을 하였고, 육상의 경우에는 실제 경기 장소인 잠실운동장 내에 있는 보조경기장에 가서 담당 교사의 지도 교사의 지도에 따라 열심히 연습에 임했다. 먼저 기본 체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실시한 후에 자세 교정이나 경기 요령 등을 익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습득함으로써 예선전을 대비했다.

처음 출전하는 대회라 연습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본선 진출을 이룬 사실을 통해 내년이나 앞으로의 전국 체전에 더 큰 기대를 걸어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번 대회에서 얻은 커다란 결과를 통해 정신지체인들도 지속적인 지도와 훈련을 받으면 일반인들 못지 않게 무엇 이든지 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8회 요한전도회 체육대회

· 일시: 4월 26일(토) 오후 2시
· 장소: 본당 앞마당
· 참석: 요한전도회원, 믿지 않는 30대

크로마하프대원 모집

본 교회 등록 세례교인으로 크로마하프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옥순 집사(☎ 548-6916)에게 연락하면 된다.

박 도수 전도사와 황영일 장로가 지도하고 있는 영아부는 0세-만2세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아기를 데리고 온 부모를 교육시키고, 산모나 태아도 교육을 시킨다. 영아부 교육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한 교육과 신앙의 전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영아부 아기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경말씀을 교육코자 한다. 영

다. 아이들은 대개 앉아 있기 보다는 서 있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들이 예배시간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눈길도 있을지 모르나 너무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얹혀 반항하는 모습들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자는 것이다.

부서탐방 - 영아부

“예수님을 닮은 아기들”

아기들 특성에 맞게 신앙교육 실시
주일 오전 8시 50분, 10시 50분에 선교관 103호에서

아부의 교육 주제는 매월 바뀐다. 올해 4월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은 아기들' 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는 성구로 말씀을 전하게 된다.

영아부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첫째로는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 헌금이 끝나면

박도수 전도사는 그림과 말로 말씀을 전한다. 아이들은 어떠한 것에 2분 이상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과 더불어 말씀을 전하신다고 한다. 설교 말씀이 다 끝나면 반끼리 모여 공과 공부를 한다. 때로는 엄마와 같이 만들기와 그리기를 하는 등으로 아기들이 만지고, 보고 싶은 충동을 만족시키고 있다.

믿음반, 소망반, 사랑반, 충성반 각 7개씩 28개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영아부는 구역별로 1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이유는 선생님들이 자기반의 엄마와 아기에게 심방이나 연락을 자주 할 수 있고 장기 결석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둘째로는 영아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아이들의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



이것은 아이가 자라서 타율적으로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배워게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필요를 느껴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신앙인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새 친구 초청 잔치가 많다는 것이다. 언제나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들이 이곳에 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특별한 전도의 활동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새로운 해가 되면 그 전 해에 수료생이 유아부로 갔기 때문에 다시 재적률이 낮아졌다가 한 해가 마무리가 될 때쯤이면 많아져 다른 부서와의 재적률 차이도 나타난다.

영아부에서 교회에 바라는 점은 영아부 예배실의 공기 청결이다. 예배 때 영아부실에서는 엄마와 아기, 그리고 선생님들을 합하면 대략 220명 정도가 된다. 그런데 아기들은 병균에 약하기 때문에 공기 청정기 같은 것을 설치해 공기를 깨끗하게 해서 좀더 좋은 환경에서 아기들과 예배를 드렸으면 한다. (글 박주영 기자 / 사진 이운구 기자)

선교지에서 온 편지 / 독일 육호기 선교사



세속화된 독일을 변화시킬 청소년 선교에 주력

4월 기도의 제목 및 선교사 동정을 알립니다.

4월 7일부터 10일까지 국제 청소년 수련회가 북부 독일 부페탈(Wuppertal)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들이 전원 참석하며 본 선교사는 개회예배, 폐회예배에서 설교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이곳 1.5세와 2세들이 독

일 전 지역에서 참석하여 신앙훈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청소년들 중에서 은혜를 체험한 신앙 인물이 배출될 때 세속화된 독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청소년들에게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청소년 선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16일까지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총장 한철하 목사님이 독일에 오셔서 함께 동구권 선교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현재 본 선교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선교신학, 동구권 선교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25일까지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개최됩니다. 유럽 전지역에서 활동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여 목회와 선교에 관한 강의와 토론, 유럽 선교의 전략과 비전을 세우는 세미나이어서 참석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본 선교사의 영육간의 건강과 독일과 동구권의 선교를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섬기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와 비스바덴한인장로교회가 부흥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추신: 지난 3월 7일은 세계 여성 기도회 날이었습니다. 올해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해로서 전독일 지역에서는 기도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곳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도 돈부쉬교회(Dombusch Gemeinde)에서 12개 교회들이 한 자리에서 기도회를 가졌는데 한국인 교회에서는 우리 프랑크푸르트한인장로교회가 유일하게 초청되어 참석하였습니다. 이 기도회 날에 시작 전에 먼저 한국을 소개하는 순서를 특별히 넣어서 한국의 전반을 소개하였고, 우리 교회 여성 성가대원들이 한복 차림으로 찬양하였고, 저희 집사님은 솔로로 '오 거룩한 성'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우리 충현의 식구들과 선교위원회 여러 회원님들의 사랑과 기도를 늘 감사하며 두서없이 간단히 소식 전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충현의 식구들에게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1997년 4월 2일
육 호 기 선교사 올림